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영광 찬양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계시는 당신(창1:1).
궁정(宮庭)은
빛이 되어 무서지는 순결한 눈동자!
그날의 당신께서
지금,
하얀 파도 머리에 이고
겨울날의 추위 머금은
새벽바다 뒤편 장미성경을 절어오시나이다.
마침내,
주(主)는
나의 간 갈 깨우시는
붉은 해로 오시우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식(知識) 가슴에 새기심에
고려하시며,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알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당신(요1:1)
천부(天父)의 손길
성결한 육신 입히시옵고
하루동안 천년을 살고,
천년한 하루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본향(本鄉) 떠나서
기어아...
주(主)는
시린 손 부비시며
모진 이 땅 거나셨나이다!
그리스도여,
세속(世俗)의 양명에 어췌심은
누를나는 세상,
너 눈물나게 하시는
태초의 첫사랑 때문일까요!

이 아침에,
또다시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알습니다!

그가 세상을 만드신단 모습을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가 세상을 지으셨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천성을 떠나신단 모습을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처음부터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천조자여, 우리네 연약한 마음과 두렵음 굳게 세워
주소세!
태초의 그 사랑으로, 속히 우리 영혼을 독수리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여 보옵소서!

2001년도 청지기 훈련 메시지 (2)

양을 찾으시는 위대한 목자(누 15:4-6)

예수께서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로 나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생애 밝은 서기관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즉시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아흔 아홉 마리는 어찌고? 라고 생각했으리라! 사실 세리를 포함하여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것이 뭐가 있었는가. 그들과 친분을 맺어보자며 명예가 더럽혀 지는 것 외에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인간은 이익을 위해 권력자의 눈에 발견되는 기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추구하는가!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그분 곁에 세리와 죄인들은 모여들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고, 그분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until He finds it)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그는 다 양 잡아서 각기 제 길로 갈던 우리 한사람 한사람에게 인내와 실천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구로부터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포기하라고, 그 까닭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상실해 왔는가!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끝까지 찾으신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성령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기쁨! 이 땅에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던 참된 왕의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신다 기쁨! 그러나 기록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외식(外飾)은 부드러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touch)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혼은 단단한 위선(偽善)의 겹겹에 둘러싸여 그 따스함을 맛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버려진 세리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서 미소를 보게 되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한 목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운 환송을 듣게 되었음은 정말 기막힌 일 아닌가. 그리고 기쁨에 들썩거리는 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귀가하는 일은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쁜 일인가. 경이롭게도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하늘 아버지의 곁에 머물게 되는 그의 양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진정한 천국과 영원한 이웃이 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일은 또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광경인가.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를 주저하지 마라. 한 걸음씩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 만일 주께서 주검을 내리신다고 해서거든 두려워말라. 그렇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라. 결단코 양이 없는 청지기는 되지 말라.

매주 모이는 금요구역예배의 경신을 위한 제안(2)

복음으로 세워지는 구역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랗게 실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그 사실이 증명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그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대가를 특별히 치러야 했던 일이다. 그것은 주님의 경고처럼 솟대가 옮겨진 일이다. 그러므로 왕성했던 소아시아의 임품 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원인은 오직 한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곧 교회가 사회와 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 무기력증에 빠졌으므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복음으로의 회복과 영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사랑과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되돌아가는 영적인 혁명을 시도하곤 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의 백성들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붙이며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두트리들을 통해 언제나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가꾸곤 하셨다.

2월마다 금요구역예배의 성경공부교회가 새롭게 제작된다. 이것은 구역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한 건전한 영적인 경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역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주간충현'에 한 주간 전에 미리 기재되는 설교를 읽어 주기 바란다. 이 설교는 금요구역예배 성경공부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일 교구모임 등을 통해서 각 구역지도 구역장들과 함께 목성하라. 단순한 담을 전달하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구역장과 구역장에게 함께 영적인 교감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주간충현'에 실린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금요구역예배 성경공부를 준비하도록 격려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금요구역예배시간에 각 구역이 복음으로의 회복과 영적인 은총을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두트리들이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신학 칼럼

부활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는지 모른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과연 있을 법이나 한 말인가? 나는 교회 나가기 전에 이미 예수가 역사상 인물이라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 죽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수 없었다.

그러던 지금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왜일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예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시기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요1:3; 골1:16; 히1:2). 죄가 없는 분이시다(히4:15).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다(고후5:21).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부활로 증명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무죄하시고 하나님되심을 증명하는 것이요, 죄인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정 해성 (목사, 3교구 지도)

Ancient Paths

(Jeremiah 6:13-16)

“This is what the LORD says: “Stand at the crossroads and look; ask for the ancient paths, ask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But you said, ‘We will not walk in it.’”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people are trying to tear down many of our old-time beliefs. This is the work of Satan Himself. Recently, we hear people speak about the need for a Gospel designed for this modern age. They come along and try to give us new things, things they have hatched up, things that have no foundation in God's Word. Everybody wants a new song. But certain things are not simply outdated because they're two thousand years old. The Gospel today is the same Gospel that Paul preached some two millennia ago. It's the same Gospel that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God is the same as He was millions of years ago.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see Heb. 13:8). Yet, we find people wanting to change the church's worship services and direction. They want Christians to adopt to society. All these things are not based on the foundation that comes from the Word of God. Today's Bible verses mention: “For from the least of them even to the greatest of them, Everyone is greedy for gain, And from the prophet even to the priest Everyone deals falsely. They have healed the brokenness of My people superficially, Saying, ‘Peace, peace, But there is no peace.’ Were they ashamed because of the abomination they have done? They were not even ashamed at all; They did not even know how to blush. Therefore they shall fall among those who fail; At the time that I punish them, They shall be cast down, says the Lord. Thus says the Lord, stand by the ways and see and ask for the ancient paths,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you shall find rest for your souls. But they said, ‘We will not walk in it’” (vv. 13-16).

Let's focus on, “Thus says the Lord, stand by the ways and see and ask for the ancient paths”. Let's look at the ancient paths and really try to understand them, so that our requests in honoring God's glory reflect His ways.

The ancient paths led believers to believe in God. The people of Judah didn't believe God. They believed in society and greed. Real believers, like

Abraham, truly believed in God and followed His ways. Think of David, who lamented,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y have committed abominable deed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Ps. 14:1). In other words, the problem originates from people's hearts. They don't believe. Their hearts are filled with decay, evil, and horrid deeds. So, no one who does good is called a “fool” by the Lord.

When I visit my home in the United States, I have to fly around 9,600 kilometers. I say fly because I can't even jump 2 meters. The flight takes roughly fifteen hours at 20,000 feet in the air. Do you think the ability to fly comes into action naturally? Of course not! It took architects, engineers, and pilots much time to design a 767. It took enormous resources and plenty of cautionary measures. You can't just say it happened automatically. A lot of thought went into such a project. Now, look at the flowers. Did you know that there are over 10,000 different kinds? Do you think that just happens naturally, without any designer or builder?

Psalms 8 reads,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ordained; What is man that You take thought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vv. 3&4)? Amen! David confessed the true wonders of God's fingers. He proclaimed God's creation of the heavens, moon, and stars! He understood that God made people of the utmost importance from all His creation. The very next day, David said, “The heavens are telling of the glory of God; And their expanse is declaring the work of His hands (Ps. 19:1). Amen! All the universe proclaims God's glory, even the expanse proclaims His hand. And what do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creation, humans, do? Their philosophy and sciences try to get rid of God. Their thoughts are centered on the world, but God is, was, and always will be. Amen! You can put Him out of your life now, but some day you are

going to have to face Him.

The ancient paths guided believers to believe in the Bible as God's Holy Word. Followers of God believe that,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 3:16). Amen!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believers knew, without any doubts, that “no prophecy was ever made by an act of human will, but men moved by the Holy Spirit spoke from God” (2 Pet. 1:21). Man's will did not originate Scripture. Yet, men were involved as the Holy Spirit bore them along as they wrote, guarding them from writing error and guiding them to write God's Word to us. The Bible speaks God's Word because it is God's Word. Think of Moses, who wrote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and Jeremiah, Isaiah, and Daniel; all these people wer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hink of Paul, Mark, Matthew, Luke, and John who wrote down, not their own thoughts but God's! Think of Peter, who was an uneducated, fisherman. There's no way this guy could have written such marvelous Bible verses. God dictated his thoughts and Peter just wrote down God's Word, as did others.

When I'm preparing my sermons for publication, working on my school project, or just writing responses to church business, I dictate God's message to the helpers He has provided me, who in turn,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write down God's message. Let me tell you that as the years have passed since my arrival here, my English needs God's help! It's phenomenal how God works through His Spirit!

The ancient paths instructed God's children to understand that all humans are sinners.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a. 53:6). Amen! Another Bible verse that probably comes to your mind automatically i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Everyone is involved in Adam's sin because everyone is

related to Adam. The Bible tells us that Adam sinned and brought sin into the life of every person.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we all have some of the old Adam in us, and that everyone who goes on without Christ dies. Why? Because the wage of sin is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Amen!

The ancient paths directed believers to believe that humans need to be born again. Nicodemus asked Jesus,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He cannot enter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can he?” (Jn. 3:4).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Jn. 3:5&6). Jesus' answer changes people's lives for all time and eternity. Judas Iscariot followed Jesus for three years. But he was not born again. He ended up committing suicide. He didn't go to God's place, but rather his own. The Bible mentions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e had not been born. Why? Because he ended up going to his own place, not God's!

Finally, the ancient paths influenced believers in the truth that the only way to escape hell and enter heaven i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n. 3:36). The wrath of God falls on all unbelievers!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Rom. 8:1). Amen!

My dearest friends, listen and follow the ancient paths. Believe in God, not the world. Believe that the Bible is God's Word, unchangeable, infallible, and holy! Believe that you are a sinner and need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so that you can escape hell and go heaven! Stand by God's Word, and see and ask for the ancient paths! Let your soul find rest. 🙏



김성곤 목사

엣적 길 (렘 6:13-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엣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길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그 자신의 음모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현시대를 위해 고안된 복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행시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새로운 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2천년이나 앞날한 시대에 뒤처졌다고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대략 이천 년 전에 전했던 복음은 오늘날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가르침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인 기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착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저를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장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노라” (나사 24:14)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는 자라. 그러므로 그들이 얻드리지는 자와 함께 얻드리겠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지니, 여호와와 말리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엣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지 않겠노라 하였으며”(13-16절).

믿음의 길

다움의 구절에 집중하여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엣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엣적 길을 보고 그것들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요구들이 그의 길에 반영될 것입니다.

엣적 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사회와 탐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길을 믿었습니다. 비에에 컸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시14:1). 달리 말하자면,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함과 악의, 그리고 끔찍한 행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뛰어나지만 어리석은 인간

제가 미국 시카고로 갈 때는 9,600 Km를 날아가야 합니다. 나는 20리터도 휘발유를 소수 없기에 ‘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인간이 날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설계자, 기술자들은, 보잉767을 고안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거대한 자원이 들었고, 주의를 요하는 정밀한 측정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 꽃을 보십시오. 그 종류가 일반 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제작자나 만든 것이 없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을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를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3,4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담긴 참된 경이로움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달과 별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물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람까지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소리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시19:1). 아멘!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넓게 펼친 공간까지도 그의 손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천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의 사상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자면, 하나님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하나님이라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면할 수 있지만, 인간이 반드시 그분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엣적 길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인 성경으로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아멘! 구약과 신약성경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2:2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성경을 기록한 근원이 아닙니다. 단지 기록자는 성경의 근원이 불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심שו로 기록하는 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것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성경을 최초로 기록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도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마가,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성경구절을 기록할 수 있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생각을 받아쓰게 하였고,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저 역시 교회사역을 위하여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의 영감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인간은 죄인임을 말하는 성경

엣적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아멘!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저절로 떠오를 다른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담은 죄를 저졌으며, 모든 사람들의 생형 속 에 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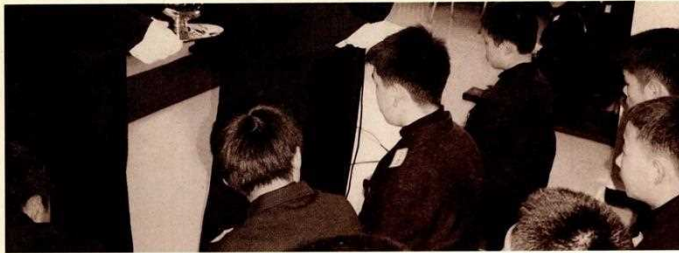
아담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죄의 삶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아멘!

거듭남을 말하는 성경

엣적 길은 성도들에게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도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요 3:4).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5,6). 예수의 대답은 인간의 생애 모든 시간과 영생을 소유하도록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지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의 언급은 만일 그가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생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성경

죄책감으로 엣적 길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신자를 위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아멘! 사망하는 성도 여러분, 엣적 길을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기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엣적 길을 발견하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강복희 (침사, 교구)

성경학교를 떠나기 전날인 주일부터 많은 눈이 내렸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설경을 보며 춘천경보통신학교에 도착했다. 4박 5일이 가기 전에는 긴 시간 같았으나 성경학교가 시작되자 그곳만이 전부인양 이곳의 현실의 삶을 씩 잊어버렸다. 그들도 같아하고 있을 듯했다. 눈속에 갇힌 것 같은 시간들. 그러나 쉼에서 자유롭게하고자 마련된 은혜의 장소인 그곳에서 학생들이 예배와 본반공부시간을 비롯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 예배시간에 슬럼덩이 산만하던 학생들이 설교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때를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잠잠해졌고 깊고 단단하게 파묻어두었던, 그래서 차마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었던 아픈 눈물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소경이 눈은 뜨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목마름을. 그들은 변화되고 싶어했다. 학생 중에 자신을 '어리버리'라고 소개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를 주들게 했던 학생이 '어리버리'의 손을 잡아주고 가는 모습을 정말 아찔하게 다녔다. 반학생들이 그를 데리고 장기를 두며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의 주님을 담고 싶어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들이 녹아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금식하던 몇명의 학생과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학생, 예전에 은혜를 받고 기뻐한 마음이 냉랭해져서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던 학

생들, 무릎꿇고 목을 빼고 듣던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관심없이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예수님만이 능히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다. 어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반응을 보인 자들이다. 이제까지 아무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갈등의 시간이었다.

아쉬운 것은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의 삶에서 퇴원후에 각자 자기자신의 모습과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였다.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포기하고 절망이 아닌 기도와 간구뿐이다. 마지막날 학생들에게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엄서를 썼다.

나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용서해주시는 주님앞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돌을 던지지 말자. 그들은 우리에게 분노와 원망의 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지 말자고... 주님이 돌아보시며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자. 나는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눈으로 폭파된 신촌정보통신학교의 학생들 심령 속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주님만이 아신다.

신촌정보통신학교(신촌소년원에서 온 편지)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는지 믿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모르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루고 싶은 것은 모두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루려 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루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

도 내 마음에 들면 그 여자에게 어떤 것을 해서라도 꼭 사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중학교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겨우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급 생각하던 부끄럽고 후회되는 시간들입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무엇이든 가치있는 것을 배웠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그 시간동안 배운 것은 더럽고 어마한 것들 뿐입니다.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망가트리는 시간에도 바론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프고 슬프다고 말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이란 단어는 저에게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 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1년 1월12일 주님의 자녀가 되고픈 ○○○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많이 나가고 나쁜 친구들들과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겁한 것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친구들과 함께 많이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을 믿을 의의가 되고 마시는 마음 속에 나쁜 것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아버지께도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2001년 1월12일 주님의 자녀가 되고픈 ○○○

1. 선교주일(오늘)을 맞이하여 찬양헌신

시간: 주일 오후3시 40분~4시 40분
장소: 1월 28일
대상: 아랜들
대상: 외선부교사, LMTC 수감생,
단기선교 참가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도에 차서 맞이하였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군요

국내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온 신세가 소동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조용하게 12일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달 26일까지 한달 동안 항쟁전 이슬람 교인들의 라만단 금식은 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밤에 먹고 활동을 하며 관공서와 가게들도 늦게는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어려운 이곳을 생각하고 또 금식을 통하여 절약된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행사이니 많이 변질된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처럼에 삼국인 형제들과 함께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베트남·태국·필리핀·방글라·조선족 그리고 한국 형제들 60여 명이 참석하여 가나 대이비드 목사님을 모시고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삼국인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소식에 함께 보내드렸던 방글라데시 왈리울라 형제의 간증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형제가 계획대로 한달 간의 휴가를 마치고 지난 달 23일 복귀를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자기 가족들과의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와는 부자간의 관계를



끊고 재산 상속 등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 의원인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년 선거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1년 동안 그의 아내와 딸을 현재처럼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앞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1주일 동안은 맞고 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데까지 의견 접근을 보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를 해보니

가 아버지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와서 집의 모든 가구들을 부수고 아내도 다리가 부러지고 딸은 다른 곳으로 보내져서 어려운 상태라는 소식을 동생이 올면서 전해주어 앉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말레자 사람으로 몇 개월 더 있어야 방글라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데 자기 아버지가 영주권 나오는 것을 방해할 것임이 또한 아내와 딸의 생활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크지만 조기귀국을 하여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욱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나의 마음을 위로하러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왈리울라 형제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3월 선교사들이 이곳을 방문하실 때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헌양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귀국하여 효과적으로 삼국인 선교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들을 회사 직원(사무보조)으로 채용하여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리비아에서 이병석 집사
(bsleeok@hanmail.net)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을까요?

박경희 (선교사, 정년2부)

얼마 전 청년2부 제자반에서 성경공부 중 목사님의 질문이 있었다. 선교지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의 질문에 예제 말레이시아의 기억들을 모아보았지만 특정한 구절이 없을 때쯤이지 않아 '하나의 구절보다는 Q.T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인도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다.

시간이 지난 후 여윌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내게 힘이 되어준 구절은 '힘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기억 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번은 유치원 교사들과 비자여행으로 싱가포르를 다니는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비행기가 오후 6시 20분 발이었고 우리들은 좀 늦긴했지만 6시 전에 공항에 도착했었다. check in을 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이미 비행기를 이륙했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일본인 승객 한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같은 처지였는지 직원에게 여러가지로 사정도 하고 마지가지 했지만 별 수 없었다. 기성관계로 이미 이륙했으니 내일 이 시간에 이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내일은 유치원 출근을 해야하는데 오후까지 싱가포르에 남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든지 남아 있는 돈으로는 비행기값이 턱없이 모자랐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선교훈련 중이신 진분님은 목사님께 전화를 해 약간의 차비를 빌린 후 육로로 돌아 오기로 했다. 육로로 오게 되면 조호바루에 있는 출입국을 통과해야 했다. 조호바루까지 오는 날은 시내버스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어안이 병병해졌다. 비행기를 놓치고 버스를 타다니... 하지만 한편으로 기도를 했다. 육로에서는 비자반까지 გადა를 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사실은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출입국, 거기서 3개월 비자를 받기위해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조호바루에서 우리가 머무는 KL까지는 4시간이 족히 걸린다. 고속버스에, 택시에, 우리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가 넘었다. 몸과 마

음이 많이 지쳤다. 운명의 면지와 땅을 씻어내고 잠든 시간은 새벽 5시가 넘었고, 아침 7시! 지친몸을 일으켜 출근준비를 해야했다. 참으로 힘든 비자여행이었다. 안락하고 빠른 비행기를 두고 6시간이나 걸려 고생고생하며 돌아온 우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며 약간의 풀이 죽었다.

그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대입학생들을 위해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원을 정리하신 후 일주일 정도 태국 여행을 다녀오셨다. 선생님들이 돌아오시는 날 밤 공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공항 입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갔다가 올 때는 항상 한국행 return ticket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 밖으로 선생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달 전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올 때 우리에게도 그 ticket은 없었다. 늘 검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 또한 없었다. 그런데 공항의 감시카 심해진 것이 그때쯤부터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셋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만일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아마 같은 처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그랬다면, 유치원 수업도 그날과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기 시작이 우리와 달라 8월이면 학기가 끝나고 가을 학기인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한창 우리들은 졸업할 앞두고 재물잔치 준비에 열심인 때였던 것이다. 이국땅에서 아이들의 발표회를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크게 실망시킬 뻔하였던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던 그날 밤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힘들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 감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다. 그런 것 같더니 어느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는가. 설령 지금 내게 닥친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힘들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자. 우리의 아버지는 늘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니까.

소망의 집을 다녀와서

백미경 (집사, 정년2부)

새해 들어 눈이 많이 와서 너무 행복했었던 오늘은 3교구 미리아 여전도회, 청년2부 식구들과 아침 9시에 만나 거여동에 있는 소망의 집에 가려니 아예 내린 눈 때문에 길이 방간이라 조심스러웠다. 10시 조금 넘게 도착했는데 그곳 원장님은 눈이 와서 우리가 못 오는 줄 알고 걱정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건물 4층 큰방 한칸에 이리저리 누웠기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딱딱했다.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니 내 가슴에는 미안한 마음이 더 생겼다. 왜 더 일찍 못 왔을까? 부모도 되면한 아이들, 하지만 주님은 외환하지 않으셨다. 귀찮은 원장님, 이 아이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기에 감사하다. 이곳은 녀성마비와 자폐증 그리고 정박아, 그리고 시각 장애를 가진 1살에서 23세까지 총 32명의 살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다친 곳을 치료해 주기로하며 누웠기는 아이들을 한명씩 씻기기로 했다. 할 수 지켜주게 하고 있어서 건물을 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대변을 본 상태로 오래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다. 작은 아이들은 너무 가렵고 또한 손이며 발톱이 꼬여 있어서 씻었지만 한참이 가스로 울었다. 얼마나 누

워 있었는지 동판이 납작해서 내 가슴은 조여들었다. 주님! 주님! 얼마나 주님을 붙들었는지 모른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다리를 씻기면서 내 살이라도 주고 싶어요, 주님! 하고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다. 정말 울부짖고 싶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건 기도뿐이었다.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목욕해서 개운한지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니 감사했다. 어느 아이는 자꾸 울어서 안아 주었더니 내 가슴에 안겨 잠이 들었다. 잠이 들은 것 같아 내려놓으려 하니 더 웃을수록 꼭 잡고는 안 떨어지려고 때를 때스는데 내 한껏 끌어안아 주었다. 순간순간에 엄마, 엄마하고 청얼대는 아이들! 얼마나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생각하니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누워있었지만 되는 아이들에게 저 밖에 내리는 눈을 보여주고 싶다. 저 눈 속에서 뛰놀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언젠가는 이뤄지길 기도한다. 진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이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 작은 힘이 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 만평 글·그림 장민/(minj74@jaangminn.com)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홍혜선 (청년2부)

사! 이비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장점이니 특성들을 PR하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지만 나의 기준으로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세상에겐 중요한 것이 참 많다. 돈·명예·개인생활 등등. 이런 단어들은 매혹적인 느낌이 참 많다. 보여지기 때문일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리 공감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배움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내러와 피조물들의 죄 때문에 피흘리신 것에 대해 나는 숙연히 침 수밖에 없다. 이 사랑에 티끌만큼도 따라갈 수 없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잘못을 지적하는 일보다 장점을 자랑하여 주는, 남의 허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가지려 한다면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앙이 이론이나 관념만으로도 그린다던 공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셨듯이 나와 실천하려고 마음을 주스리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지켰다가 되어 준다면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요?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한번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터에서

섬김의 자세로

이 형 탁 (할렘루아 성가대 대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며, 또 어떻게 그 분을 섬기기를 의도하시는가? 이 질문은 지난 4, 5년간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 나는 특허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특허의 재판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업이다. 대중 눈치를 채셨겠지만,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명예를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직장에서 평균 하루에 열시간 정도를 보내고 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셈이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나에게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기에, ‘소명’, ‘직업’, ‘일’ 등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정의를 내려야 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직간접적인 도움에 의해 얻은 결론은 직업은 섬김,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단순한 복음전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과 타인들을 섬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섬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이 아니던가?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섬기라 명하셨고 더욱이 몸소 철저히 실천해 보이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변할 수 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도움을 필요로 하며, 또한 나의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4-15)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2교구 박종규 장로 모친(여78세)세종중으로 뒷목을 막아서 쓰러지셨고, **이영순 성도** 직장암 수술로 송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윤이임 집사**와 **지인희 성도**는 팔복중풍에 걸리셨습니다.

5교구 고길중 성도(남41세)제직장과 대장암으로 영등세브란스병원 467호실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집사(남70세)뒤에 암으로 강남병원 592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두 번 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김양녀 집사(여75세)신부전증으로 관상동맥 협단 연결수술을 하고 영등세브란스병원 813호실에 입원해 있으며, **김영옥 집사(여51세)**간에 물결이 있어 자가치료를 중입니다.

7교구 박정애 집사(여58세) 팔 수술하시고 장동기톨릭병원 512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

경로당 구역

금 호순 (권사, 4교구)

언제부터가 붙여진 이름 - 경로당 구역. 평균연령 74세, 예배를 마치고 피아노, 합창곡 사투리가 어우러져 들려오는 부산에서의 피란식민지 얘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 얘기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해 번 돈으로 자식 키우면서 신앙 생활했던 얘기를 굼직하게 주름잡힌 손마디마다와 함께 이야기해 배어있는 삶의 흔적들을 가늠해보게 한다.



차를 세우고 사람이 내려 다리와 허리를 반쳐드려야 겨우 차에 탈 수 있는 은퇴 집사님, 이가 빠진 잇몸에 들리가 잘 맞지 않아 함축하게 꿀이 떨어 입가의 주름진 모습의 권사님, 집집마다 둘러서 식구들을 태우다 지체되어혹시 시간이 늦어질까치면 다리가 아파서 있을 수 없어 입가 갈라짐을 흘리며 쏙고리 앉아서 기다리시는 은퇴 권사님. 본인들은 당신들 나이도 너무 많아 구역장을 거칠게 한다며 미안해하지만, 나는 부모님에게 두 아들 사랑을 이어와 하게 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느님 구역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역장과 부지역장을 겸하면서도 다른 구역들을 돌보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이를 놓고 기다리던 중, 한달에 한번씩 우리집에서 연합 지역모임을 갖고 9지역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였다는 소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자동차 기사가 없으면 마비되는 우리 경로당구역과 9지역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 모임들을 통해 지역식구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틸틸대는 구형 겔로퍼에 트렁크 뒷자리에 지(7좌석) 배국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태울 때는 좀 더 편안한 생각을 하지만, 편하게 구역에배에 올 수 있다며 불편함을 잊은 채 환하게 웃는다는 경로당 식구들을 보면서 이 차라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절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누가 왔다가다 팔아이가 나어놓은 조그만 상자과 카드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 어머니 일년 동안 부록한 구역장 위해 기도해주신 경로당 식구들께 내가 인사하러 하는데... 품게 포장된 상자 속에 담근, 나에게는 약간 작은 지주의 내의, “엄마가 누른것 보이나 봐요”라는 딸아이의 다정다정하에 호호 웃으면서도 부록한 나에게 경로당 구역의 구역장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 많으시거니와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 집사님! 이시할 계획 있으시면, 70세 이상 대 환영입니다.” 4교구 9지역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지역식구들! 올해에 예수님은 꼭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정마다 주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로당 구역 화이팅!

내일의 전송

하나님의 작정하심

김 경아 (대학부 간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찬양의 기쁨은 실로 형용할 수 없이 크다.

지금으로부터 22년전출입가보다. 초 등부 시절, 충무로에 있었던 구 성전의 본당에서 예배시간마다 장난치곤했던 내가 유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드리는 시간’이었다. 내겐 그 시간이 그토록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 당시 솔리스트, 찬장, 지휘, 반주 선생님 얼굴까지도 기억한다. 이윽고, 나는 그렇게 사모하는 ‘찬양대’에 입대하게도 결심을 하고서, 어떤 마음에선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손매의 길 행함은 (그 당시 새한 송가)’을 선정하고서는 그 곡을 맘껏 외었다. 혼자 피아노도 쳐보고, 길을 걸으면서도, 부엌에서 어머니 말하실 때면 옆에서 큰소리로, 정말이지 큰소리로 부르기도 불렀다.

드디어, 떨리는 순간이 왔다. 그 넓은 본당에서 잘 보아야할(?) 사람들이 집중된 그 시간은 그렇게 긴장되었다. 너무 먼 나머지 정작 크게 불러야 할 그때는 개미소리로대 더 작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너그러우신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이미, 수족되어져버린 내 운명의 기원들은 그대 ‘전부’ 라며 약속하게도 나를 ‘탈락’ 시키는대 크게 공헌해 버린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때의 좌절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가 지나 찬양생이 되면서, 어떤 생 각에선지 다투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 찬양대의 크든 작든 ‘전원 합격’ 이 되는 바람에 웬지 조금은 걸끄러운 심정(?)으로 품에도 그리던 ‘찬양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사, 사모함이 컸던 탓인지, 그토록 멀리 있던 찬양교

회를 나홀로 어린 나이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케 한’하고 제일 깨끗 하던 내 단장을 하던 한 번도 거르지않고 절례는 마음으로 찬양대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나는 지금도 가끔 나의 회로가 꿈나아 사람-관왕을 그렇게 되나하면 그 때를 회나아 육이 따라주지 않는 지체들을 만나면 서슴없이 나의 과거를 공개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극히 일부분인 이 이야기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내게 주신 음악적능력도, 열정일수도, 내 몸, 내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대마음의 중심이며 주님을 향한 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너무나 고백하고 싶어서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대 품 역시 장차 배우자와 함께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대학부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잠시 한곳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지만, 내 삶의 전부를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좁은 길도 기쁜 마음으로 말이다.



제5회 장애인 교육과 치료세미나에 다녀와서

권 경 애 (사랑부 교사)

먼저 이번 한국 장애인 선교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교육과 치료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성 수양관에서 1박2일(1월1일부터 12일까지)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400여 명의 장애인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활기찬 열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도 역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사랑부에서 봉사하며 사랑부 학생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 때도 있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로서 봉사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서 사랑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큰 보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나 스스로 사랑부 학생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애인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장애인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나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앞으로 사랑부 지체들을 위하여 더욱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 자신이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축원의 성도들을 사랑부를 사랑의 눈길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사랑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보조바퀴. 보조 의자. 보조 교사.

김 유 석 (에바다부 교사)

이 '보조'라는 말이 사용되면 거기엔 무엇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말이 붙는 것을 꺼리는가 봅니다.

얼마 전 새해를 꾸러나갈 교사조직을 새로이 가다듬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석아, 여기에는 왜 없애? 너 항상 쓰는 말 있잖아. 보조!"

우스갯소리였지만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보조교사, 수화 통역보조.

그동안 에바다부를 섬기며 많은 소임에 부여된 이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말하기 꺼려왔던 역할들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내 자존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만하리 그치없는 내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미숙한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조바퀴. 접어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 쉽고 가벼워서 어디서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보조의자. 완벽하진 않지만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역할을 하는 '보조'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

다.

"우리가 알게된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 (로마서 8:28)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지체들이 곳곳에서 많은 소임을 겸손하게 잘 감당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소절이나 영화도 주님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원리를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일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크고도 놀라운 섭리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받을 자격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평안,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 주님이 가르치신 지혜, 주님이 보내신 동역자,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님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인도해주시고, 부당한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신리의 생

'에스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열망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끝나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읽고 나면 곧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역대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역사서이지요.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 초기 성경이나 1C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리고 유대인의 탈무드 성경 등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에서 분리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70년경(Septuagint or LXX)도 한권으로 취급했고, 오리게네스(A.D185-253)와 라틴어 성경(Latin Vulgate; A.D390-405)을 번역한 제롬(Jerome),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Wycliffe; 1382)도 에스라1권, 2권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에스라서를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후, 70년 동안의 포로생활이 마치지면서 포로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놀랍게도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왕의 칙령에 의해 성취되어진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명심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희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부르심의 소망

언뜻 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꽃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예후수아1-9가운데 하나님께서 예후수아에게 세 번이나 거듭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한수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예후수아가 임명되었을 때, 예후수아는 막중한 임무와 사명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예후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후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인 말씀으로 예후수아를 격려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예호와 내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새해부터 주간축원 기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사역을 위해 수단 선교지로 떠난 권요섭 기자-능력있고 열심있는 기자-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잇게 되려면 때 권요섭 기자와 나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비교하면 할수록 위축되고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수아의 마음을 격려하게 아시고 격려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번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간축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며,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 간증과 나눔이 차고 넘치는 부요한 신문으로 만들어 가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줄소 사"

(김성희 기자)

